

‘한글대장경’ 등 원스톱 서비스 된다
 동국대 ‘2006 지식정보자원’ 선정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 <속장경> 등을 인터넷상에서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동국역경원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전산화와 불교 원문 자료의 온라인상 원스톱 서비스가 향후 4년 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식정보 자원 분야인 역사문화, 교육학술, 산업경제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의했으며 총 41개 기관이 선정됐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동국역경원이 올해 지급받게 될 보조금은 5억7천9백만원이며 5년간 약 20억원이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이번 DB구축 작업을 통해 역사적·종교적으로 귀중한 불교자료를 영구 보존 및 활용할 수 있게 돼 한국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장경디지털베이스 구축사업’을 제안한 고려대장경연구소도 이번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에 선정돼 6억4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기존 고려대장경판과 인경자료, 각종 불경 등을 DB로 구축해 유기적인 웹 정보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승가학연구원에 1억 지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정남·회장사 주지)가 승가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동문회는 3월 15일 김포학사 3층 교무회의실에서 ‘불기 2550년 제1차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불봉안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불조성 회합식 및 점안식은 4월 26일 오후 2시 육회당에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문중 등 이해관계 극복해야”

“정책 모임 필요” 53%… “자격 기준 강화해야” 69%
 역할에 충실 自評 35%, ‘선거 부패’ 의견 절반 넘어

본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설문, 55명 응답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6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 때문에 종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현재의 정책모임이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 도구’로 전락, 종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회의원 선거가 청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은 12%에 불과했으며, 10명 중 7명은 종회의원 자질을 높여야 종회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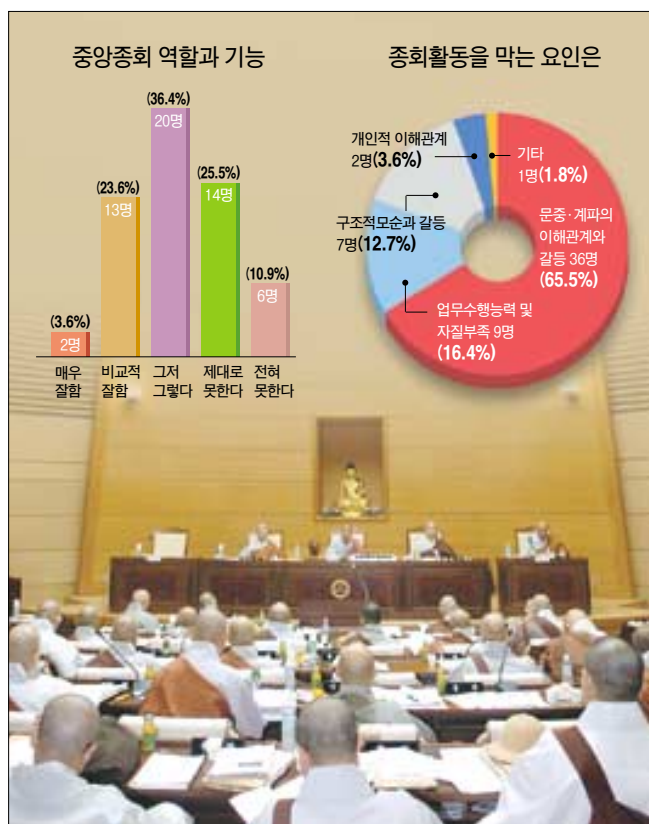
이처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중앙종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설문결과 드러났다.

특히 문중과 계파간의 갈등, 종회의원 자질, 정책모임, 종회의원 선거 등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3월 20일 열리는 제 170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 발전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지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현재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직능대표 행정분야 종회의원 1명을 제외한 80명을 대상으로 2월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을 거부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25명을 제외한 55명이 설문에 답했다.

설문은 종회의 역할, 권한, 활동 시 문제점, 정책모임, 종회의원 선거, 재가자의 종회 참여 등과 관련한 8개 항목이다.

먼저 원활한 종회활동을 막는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



자의 65.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회의원들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부족’ (16.4%) ‘종단 내에 얽혀있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 구조’ (12.7%)가 그 뒤를 이었다.

권한 매우 크다 36.4%

이같은 인식은 정책모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정책모임이 필요하다’ (52.7%)는 견해가 ‘없어져야 한다’ (47.3%)는 시각보다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정책모임이 필요하다고 답한 스님들의 절대다수가 “현재와 같이 문중과 계파에 얽매인 형태라면 없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보임

으로써 현 정책모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정책모임은 여당적인 일승회와 화엄회, 야당적인 미래승가회가 있다.

종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종회의원 자격기준(수행력 및 자질) 강화’가 69.1%로 ‘각종회의 운영방법 개선’ (14.6%) ‘종회의원 선출 방법 개선’ (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종회의원들이 소위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돼 있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종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해서는 ‘제대로 못하는 편’ (25.5%)이거나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0.9%)는 부정적 응답이 36.4%로, ‘매우 잘하고 있다’ (3.6%) ‘비교적 잘하고 있다’ (23.6%)는 긍정적인 답변 27.2% 보다 높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6.4%로 가장 많았다.

종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 (36.4%)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약간 큰 편’이라는 응답도 14.5%로 나오는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종회 권한이 크다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당하다’는 견해는 25.5%였으며, ‘약한 편’이라는 응답은 23.6%였다.

재가자 참여 ‘반대’ 우세

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패하다’ (30.9%) ‘매우 부패하다’ (18.2%)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저 그렇다’ (38.2%)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매우 청정’ (1.8%) ‘어느 정도 청정’ (10.9%)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자의 종회 참여에 대한 중앙종회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종회의원 69.1%가 중앙종회나 교구종회의 재가자 참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앙 및 교구종회 ‘들 다 찬성’은 16.4%였으며, 중앙종회 참여는 반대하나 교구종회 참여는 찬성한다는 입장은 12.7%였다.

자신의 종회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제대로 또는 전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또는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 ‘그저 그렇다’가 21.8%였다. 관련기사4면

한영우·노병철·유철주 기자

“종단통합 여망 실현… 대화합 조치를”

조계종 종정 법전·원로의장 종산 스님 교시 발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원로의 의의장 종산 스님이 98년 종단사태로 말린 스님들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종도들의 종단통합과 여망을 실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종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15일이 같은 내용으로 종정 스님의 교시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지관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자비와 관용으로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불조(佛祖)의 가르침대로 지계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차에 종단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말린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혀, 사실상 94년 종단사태로 인한

말린자들의 구제까지 언급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94년 말린자 처리는 중앙종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종무원이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원로의의 의장 종산스님도 3월 14일 ‘말린자에 대한 특별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바탕위에 종단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금산사 등 관람료 조정 현등사 등은 미정수 요청

김제 금산사 여수 흥국사 등 조계종 사찰의 관람료가 인상됐다. 조계종은 3월 13일 2006년 제2차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어) 회의를 열고 금산사 흥국사 송광사 등 3개 사찰의 관람료를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산사는 어른을 기준으로 1800원에서 2000원으로, 흥국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순천 송광사는 어른 단체 관람료를 신설, 기존 어른 개인 2500원이었던 것을 단체일 경우 2000원으로 인하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05년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의 관람료정수를 일시 면제기로 했다. 또 관람료 미정수를 요청한 완주 송광사, 가평 현등사 등은 실태 파악을 걸쳐 다음 회의에서 정수사찰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부산 영주암 회향 주관 스님

시방세계 9면
 행자교육원 회향 축하현장

휴대폰으로 시행 UP 10면
 달라진 불미전 23면
 채소로 춘곤증 썩! 27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자비광명의 燈 연화연등

부처님 오신 날, 연화연등으로 불법의 향기 만끽하세요.

“연꽃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 연꽃에 가장 가깝게 제작했습니다.
- 불을 밝히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 보기만 해도 신심이 생깁니다.
- 색상이 화려해 장엄등으로 최고입니다.
- 전통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불자들의 소원을 한송이 연꽃에 담았습니다.

- 제작보급처 : 대영사
- 구입처 : 전국 각 불교용품점